# 날씨가 미쳤다

## ‘겨울같은 봄’ 광주 관측이래 최저기온 … 무등산 눈

## 독감 환자 예년의 3~4배 … 과수·농작물 냉해 심각

광주와 순천의 낮 시간대 최고기온이 28일 4월 하순으로는 기상 관측이래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9~10시 무등산 정상과 장불재, 늦재 등에 눈이 내렸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4월 하순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까지 내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지난 1938년 이후 62년 만에, 순천의 낮 최고기온은 11.6도로 1971년 기상 관측 이래 29년 만에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이 ‘겨울 같은 봄날씨’를 보였다. 지금까지 4월 하순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 최저 기록은 11.9도(1965년)였으며, 순천은 12.5도(2009년)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봄날의 겨울날씨가 5월 상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월말의 겨울 왜? =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올 봄 이상 저온현상의 원인을 장기간 세력을 떨치고 있는 대륙 고기압에서 찾고 있다.

봄철 이상 저온현상은 3월부터 시작돼 호남지역 평균기온(3월1일~4월20일)은 8.0도로 평년보다 0.3보다 낮았으며, 4월 중 최저기온은 무려 4차례나 영하 1도~0도를 오르내렸다.

4월 하순의 겨울날씨는 지난 겨울부터 이상 한파로 시베리아와 중국 내륙지방이 장기간 냉각된 점이 주요인이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3월부터는 내륙 고기압이 따뜻해지면서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추위가 약해지는 게 보통인데, 이상 한파로 인한 시베리아 인근 지역의 장기 냉각현상이 대륙 고기압의 발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베리아와 몽골, 중국 내륙지방은 지금까지 눈으로 덮인 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28일 최고기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한파가 남하해 5㎞ 이상 상공에 영하 30도의 찬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피해도 가지가지 = 독감 발생률이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월 4~10일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 815곳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가 20.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병·의원에도 독감 환자가 예년의 3~4배가량 늘어난 상태다.

이와 함께 농작물 냉해도 심각하다. 배 산지인 나주, 영암지역 등은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 많은 데다 진눈깨비까지 내려 50% 이상이 냉해를 입은 것으로 농협은 추산하고 있다.

해남지역 논보리는 생육이 저조해 보리밭을 아예 트랙터로 갈아 엎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또 딸기와 수박·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과일과 채소 등의 작물이 생육이 저조하고 곰팡이병 등 병해를 입어 수확량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도 나빠 농가들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오늘도 쌀쌀

### 광주·전남 아침최저 2도

29일 광주·전남은 강한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떨어져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전에는 구름이 많은 뒤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아침에는 강한바람 때문에 평년보다 춥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4~17도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2.0~4.0m로 높게 일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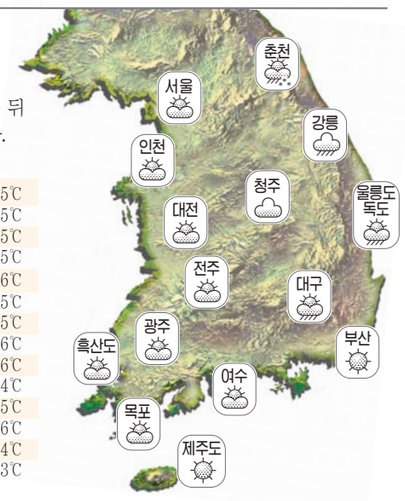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5시 44분 해짐 19시 16분 달뜸 21시 21분 달짐 05시 42분

### 아침바람 쌩쌩~

오전에 바람이 강하게 분 뒤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 | | |
|---|---|---|
| 광 주 | 구름많음 | 5/15℃ |
| 목 포 | 구름많음 | 7/15℃ |
| 여 수 | 구름많음 | 7/15℃ |
| 완 도 | 구름많음 | 6/15℃ |
| 구 례 | 구름많음 | 3/16℃ |
| 해 남 | 구름많음 | 5/15℃ |
| 장 흥 | 구름많음 | 4/15℃ |
| 고 흥 | 구름많음 | 5/16℃ |
| 순 천 | 구름많음 | 5/16℃ |
| 영 광 | 구름많음 | 5/14℃ |
| 진 도 | 구름많음 | 6/15℃ |
| 전 주 | 구름많음 | 5/16℃ |
| 남 원 | 구름많음 | 2/14℃ |
| 흑산도 | 구름많음 | 7/13℃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서~북서 | 2.0~3.0m |
| 먼바다 | 서~북서 | 2.0~4.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서~북서 | 2.0~4.0m |
| 먼바다 | 서~북서 | 2.0~4.0m |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황사지수 |
|---|---|---|
| 낮음 | 주의 | 낮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1.5~2.5m |
| 먼바다 | 남서~서 | 2.0~3.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1.5~2.5m |
| 먼바다 | 남서~서 | 1.5~2.5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2:35 14:34 | 07:44 19:49 |
| 여수 | 09:19 21:56 | 03:19 15:18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30(금) | 1(토) | 2(일) | 3(월) | 4(화) | 5(수)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6/28 | 8/22 | 10/25 | 12/23 | 12/23 | 14/23 |

**“극락왕생하소서”** 무소유의 삶을 살다 지난달 11일 입적한 법정 스님의 49재가 28일 순천 송광사에서 스님 등 불자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법정스님 49재 송광사서 봉행…유골 불일암에 뿌려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다 지난달 11일 세수 79세, 법랍 56세로 입적한 법정(法頂) 대종사의 49재 막재(終齋)가 28일 법정 스님의 출가 본사인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다.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 속에서 거행된 이날 막재에는 전국의 스님과 불자 등 1만2000여명이 참석해 스님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5번의 범종을 울리는 것으로 시작된 막재는 삼귀의·법요·헌향·헌다, 법정 스님 영상 법문, 지관 스님 법문, 길상사 합창단의 조가 합창, 헌화·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법정 스님 생전의 모습이 행사장 영상을 통해 나타나자 일제히 합장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스님을 추모했다.

또 이날 행사장에서는 헌화 후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극락왕생을 비는 묵념도 진행됐다.

49재 막재 후 스님의 유골은 스님의 유언에 따라 그가 거쳐했던 불일암에 뿌려졌다.

산골(散骨)의식은 오후 1시 스님을 곁에서 모셨던 상좌 스님들이 작은 나무상자에 담긴 유골을 평소 스님이 사랑했던 후박나무 아래에 흩뿌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유골 위에 고운 모래를 뿌리고 흙을 덮는 것으로 끝마쳤다.

몇 줌의 유골이 되어 ‘정신적 고향’을 찾은 법정 스님은 자신이 심고 보살피던 후박나무 아래에, 빈손으로 돌아와 가장 사랑했던 자연의 품에 영원히 안겼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입학사정관제·EBS 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미흡

### 감사원 “형식적 운영”

입학사정관제와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허울뿐인 입학사정관제 = 교과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명목상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수능·내신성적 등 단순 집계 결과로 1359명을 선발했음에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단순히 지원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한 것도 그대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했다는 것. 감사원은 또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지침을 어기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텝스·토익 등의 성적을 반영하는 4개 외고의 입학 전형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EBS 수능강의 ‘속빈 강정’ =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EBS 수능강의의 경우 수능강의 기획·제작 담당자 11명 중 입시분야 경험자는 2명밖에 없었고, 담당 PD의 평균 재직년수도 1.6년에 불과했다.

EBS가 매년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율이 약 80% 상당이라고 분석·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자체 분석일뿐 수능시험 주관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검증을 받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 결혼이민자 유흥업소 취업금지

### 법무부

결혼 이민자의 유흥업소 취업이 금지되고 우수 예술인과 프로 스포츠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얻을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거주(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우수 예능인에게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 정씨 ‘접대 다이어리’ 5권 확보

###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소속 진상조사단은 29일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를 대면 조사한다.

조사단은 당초 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던 지난 27일 오후 정씨를 대면 조사하려 했지만 정씨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28일까지 이틀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조사단은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접대 내역을 기록해 둔 다이어리 5권을 확보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씨가 접대 리스트에서 거론한 전·현직 검사는 57명으로 이중 현직 검사는 28명이고 검사장급은 실명으로 거론된 박 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 4명으로 알려졌다.

검사장을 지내고 나간 고위 간부 출신 전직 검사도 10명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에는 일부 검사에 한해서만 접대에 사용한 수표번호와 접대에 든 금액 등이 포함됐으며 이름만 언급돼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열차’ 운행

### 코레일 광주본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가 다음달 5일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열차’를 운행한다.

무궁화호 7량(432석)으로 구성돼 한 차례만 운행되는 특별이벤트 열차는 다음달 5일 오전 8시40분 광주역을 출발, 열대 식물·야생 동물원으로 유명한 경남 수목원을 둘러본 뒤 오후 8시50분 도착할 예정이다. 광주 극락강역·송정역·서광주역·효천역·화순역에서도 승차가 가능하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된다. 요금은 어린이 기준 2만4800원(성인 기준 3만3600원)이다. 문의 062-605-2149.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